

# 삼승 모두 깨달아 일승에 들라

## 법화경 ①

## 글쓴이



이기운 (동국대 강사)

법화삼매(Addharma pu ar ka sam dhi)란 (법화경)의 대의인 삼승을 모아 모두 일불승에 들어가는 여러의 지견을 체득하는 선정삼매이다.

〈법화경〉은 모든 중생이 속히 불도를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고 설하는데, 이 법은 스스로 깨달아 체득하는 것으로, 한 단계 한 단계 도에 나아가는 차제 행이 아닌 속히 불도를 이루는 돈가의 법이라 한다. 따라서 법화 보살은 불차제법을 닦아 번뇌를 끊지 않고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법화의 일승법은 여러장이며 대승법이기에 때문에 일체 중생이 부처와 다르지 않고 여러장을 지나야 반드시 안락을 이룰 것이므로 가르침을 따라 행하면 차제행으로 이승의 길을 가지 않고 번뇌를 끊지 않고서 그대로 삼매와 각종 다라니를 얻어 불도를 이룬다는 것이다. 이를 비유하여 연꽃이 한꺼번에 많은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법화삼매를 행하면 많은 결과가 한꺼번에 갖추어 진다고 한다.

삼매(sam dhi)는 등지(持)라고 하는데 마음을 평정하게 유지하는 것. '심일정성(心一境性)' 혹은 '심일단성(心一端性)'이라고 하여,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집중하는 정신력을 말한다. 또 다라니(dh rani)는 총지(總持)라고 번역되며 삼매를 닦아 오

랫동안 익히면 이루어지는데 제법실상의 지혜와 함께 하게 된다고 한다. 따라서 삼매와 다라니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대승불교에서 삼매와 다라니는 정신통일하는 지(amatha)와 관(vipa yan )이 선(dhy na)과 관련되어



39

## 대상에 집착 않는 실상수행 본보기 불도 이루는 길 '연꽃열매'에 비유

보살의 보편적인 실천덕목으로 되어 있다. 〈법화경〉에서 법화삼매의 선정을 실천 곳으로는 방편품 일불승의 비유인 화택삼거(火宅三車)중 대력백우거와 안락행품의 선정수행을 들 수 있다. 화택삼거란 〈법화경〉 일곱 가지 비유중 첫 번째 나오는 비유이다. 어느 장자가 불타는 집에서 놀이에 빠져 있는 아들들을 구하기 위해 이들이 가장 좋아하던 사슴의 수레, 양의 수레, 소가 끄는 수레를 각각 주겠다고 하여 일단 불타는 집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는 자

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크고 힘이 센 소가 끄는 수레를 아들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다는 것이다. 이 비유에서 수레는 여러의 법체를 비유하며 수레를 장식한 장엄구들은 일불승에 들기 위한 수행을 나타낸다. 여기서 수레에 깔아 놓은 고운 대자리나 붉은 베개 등은 온갖 관(觀)을 닦아 선정이 이루어지면 삼매에 들고(煉) 삼매와 그 덕으로 정관이 바르게 성숙하며(熏) 자재한 선정에 들어감(修)을 가리킨다. 또 안락행 품에서는 신 구의 서인(身口意攝)안락

행을 설하여 보살이 행할 바 선정의 수행을 밝히고 있다. 곧 "인욕의 경지에 머물러 부드럽고 온화하며 착하고 순하며 조급하고 성질내지 않고 마음에 공포가 없으며 대상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온갖 사물의 여실상을 관하여 그것에 집착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는다"라고 실상정관에 드는 보살이 수행하는 본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 외에도 상불경보살 약왕보살 관세음보살 보현보살 등도 보살행과 교화행을 펴고 법화의 법을 들은 다음 법화삼매와 다라니를 얻어 일불승에 드는 〈법화경〉 선정삼매의 모습을 설하고 있다.

불교의 실천체계는 계 정 혜(戒定慧)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계로서 신 구 의(身口意) 삼업을 다스려 조절하며, 이렇게 계를 청정히 한 바탕에서 마음을 한 곳에 집중시켜 선정을 계발하며, 선정삼매가 청정해지면 지혜가 청정해져서 지혜로써 번뇌를 끊고 보리를 성취하는 수행이다.

〈법화경〉 법화삼매 역시 계근(戒根)이 청정해지므로 여러 상사를 선정수에서 보아 법의 희열을 느끼고, 정근(定根)이 청정해져서 깊은 선정이 생겨 삼매에 들어, 혜근(慧根)이 청정해지므로 법화삼매로 이끄는 보현보살 및 시방불을 삼매속에 빚고 마침내 불지견을 얻어 보살정위에 들어간다. 따라서 법화삼매를 증득하므로써 (법화경)의 구경인 회삼귀일(會三歸一)의 법화실상을 증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태극 니니삼판노 스님이 쓰는 중생이 우주라지만 ②

### 부처님의 자유 ②

법 은 현대 세계가 기대하는 어떤 자유도 완벽하게 충분히 제공하겠다고 제안하고 있으므로, 자유의 지평을 더 늘리려는 인간의 열망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함으로써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가능성 간에 근본적인 합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러한 목표점의 일치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이 처음으로 법을 만나게 되면 출발점에서부터 곤혹감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자기네가 친숙해 있는 사고 방식과 상충되기 때문에, 지적으로는 모순으로 보이고, 정적으로는 장애물로 느껴지는 어떤 특수 양상에 직면하기 때문이다.

다름아니라, 법이 자유로 가는 길이며, '자유'의 맛'으로 넘쳐나는 가르침이라고 들었는데, 막상 법을 따르려고 들면 자유는 커녕, 자유와는 정반대인 규율, 억제, 극기 따위의 생활상의 규제만 잔뜩 요구한다는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부적하고 있는 이 어처구니없는 논란을 두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정말 자유를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유를 줄여야 하는 것인가? 자유라는 목표가, 자유를 정면 거부하게 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방법들에 의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일견 역설처럼 보여지는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두 가지 종류의 자유 즉 방종으로서의 자유와 정신적 자율로서의 자유를 분

## 자유는 방종이 아니다

패락 방임하면 결국 자제력 잃어  
생사 윤회 해탈이 진정한 참자유

간하는 데서 찾을 수 있다.

현대인들은 대체로 자유를 '방종'과 동일시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자유란 충동, 열정, 번덕을 마음껏 방해받지 않고 쫓아다니는 '허가증' 정도의 의미밖에 없다. 그는 믿는다. 자유롭기 위해서는 하고 싶은대로 무슨 짓이든 다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라도 할 수 있고, 무슨 생각이든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이러한 허가증에 첨부되는 어떤 규제도 그에게는 자유에 대한 제한으로밖에 보이지 않지 않으며, 따라서 행위, 말, 생각의 절제를, 규율과 극기를 요하는 이 실용적인 섭생법이 그에게는 일종의 구속으로 느껴지는 것이다.

그러나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말하고 있는 자유는 결코 방종의 유(類)가 아니다. 부처님이 가르치신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써, 번뇌가 가시면 곧바로 생겨나며, 무심결에 또는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버릇이 없어지는 데서 그 면목을 볼 수 있고, 생사의 윤회에서 최종적으로 해탈함으로써 정절을 이루는 바 마음의 내면적 자율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정신적 수련 과정을 밟아보지 못한 보통 심리 상태의 범부들은 즐거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그 반응으로 잠재해 있던 갈구의 성향이 튀어 나오게 된다. 즉 윤회한 느낌을 자극해 준 그 대상을 소유하여 즐기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는 것이다. 또 범부가 고통스러운 느낌을 경험하게 되면 잠재해 있던 혐오 성향이 작용하게 되니, 고통의 원인에 대한 반감인 것이다.

그런 성향을 의식 속에 남겨둔 채 반복해서 그들에게 양보하고 인정해 주고 또 계속 애착을 지니면 그것들은 점점 자라나게 된다. 마침내는 자제력을 완전히 잃어 가기에 이르는 것이다. 그 좁 되면 누구든 간에, 그가 실사 앞에서 우리가 상징했던 남자처럼은 지구의 제왕이라 해도, 내면에서는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자기 속의 번뇌들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노예에 지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a.com)

## 과학산책

### 보존(boson)입자

지금까지 우리는 힘을 가 삼입자의 작용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고 모든 입자는 그 입자의 스핀 수에 따라 보즈 입자 혹은 페르미 입자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입자나, 힘의 역할을 하는 가상입자가 항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입자나 힘의 역할을 한다는 것도 알았다. 이 입자나 힘은 다른 어떤 것 같은 장(場)의 다른 표현이다. 우리는 서로 대립되는 듯이 보이는 성질이 더 근본적인 수준에서 통합되는 것을 물리학의 성공적인 이론인 양자장이론에서 확인하고 있다. 결국 달라 보이는 것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리고 그 밑에 드러나지 않는 더 근본적인 통일성을 바라보는 불교적 수행을 하라. 그리고 고정된 것은 없다는 것을, 물질은 이루는 근본에 대한 탐구를 하고 있는 양자장 이론이 알려주고 있다.

의해 우리는 이미 어떤 양자장, 보존 혹은 페르미 입자도 입자나 힘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보존이나 페르미 입자나에 따라 통계적 특성이 서로 다른데 이는 스핀에 의해 결정된다. 보존은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동조된 집합적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페르미 입자는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할 수 없는데 이는 다양성의 원인이 된다. 즉, 복잡한 원자 안의 모든 전자들이 가장 작고 안정된 궤도로 떨어져 있지 않고 더 크고 복잡한 바깥 궤도를 점유하는 것은 전자가 페르미 입자이기 때문이다. 전자가 같은 상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순서적으로 안쪽 궤도에서 바깥쪽 궤도를 채워나간다. 이로 인해 화학원소들이 수많은 다양성을 갖게 된다. 보존과 페르미온은 각자 창조세계에서 통합하고 다양화하는 역할을 한다. 페르미 입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화학시간을 통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창조세계에 상대적으 로 덜 다루어진 보존의 성격에

대해 알아본다.

고전적인 입자의 개념에서, 입자 1과 입자 2를 두 개의 주머니가, 주머니 나에 넣으면 [(1,2), (0)], [(1), (2)], [(2), (1)], [(0), (1,2)]의 네 가지 경우를 열거된다. 여기서 [] 안에 첫 번째 ()는 주머니 가를 두 번째 ()는 주머니 나를 의미하고 각각의 ()안

### 같이 모이는 성질 강한 '보즈' 레이저·초전도 현상 일으켜 자연계 유유상종 법칙 흡사

에 들어있는 숫자는 입자 번호이며 0은 그 주머니에 입자가 없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같은 주머니에서 두 개의 입자를 발견할 확률은 첫 번째 경우와 네 번째 경우가 되며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전체 네 가지 경우 중 두 가지 경우이므로 50%이다.

그러나 보즈 입자들은 서로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위에서 살펴본 확률 계산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즉, 입자 1과 입자2의 구별이



없기 때문에 전체 가능한 경우의

증가했다. 이를 같은 날개 깃을 가진 새들이 함께 모이는 유유상종하는 보존의 성향이라고 말한다. 이와 반대로 페르미 입자는 실제로 같은 상태를 점유하는 것을 금지한다.

결론적으로, 같은 보존 입자들은 같은 양자 상태를 점유하려는 통계적 경향을 보인다. 이 같은 유유상종의 통계적 경향은 레이저 빛, 초유동성, 초전도와 같은 집합적인 동조 현상을 야기한다. 레이저를 예로 들면, 레이저 빛은 일련의 흥분된 원자가 빛을 방출할 때 일어난다. 전자기장의 보즈 성격 때문에 광자장은 퍼지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날카로운 지향성을 가지고 방출된다.

조원희 (본사 전략정보실장)

##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종단 등록기념법회 (및 나한전 봉불식)

### 모시는 글

귀의 삼보하옵고

본사 회주스님인 해인 큰스님께서 이땅에 부처님의 성전을 건립코자 원력을 세우시고 불사를 시작하진 10여년이 넘는 동안 국내외의 신심깊은 불자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기도원력에 힘입어 지난 96년 9월 중앙 최대의 법당낙성 회향법회를 가진 뒤 만 3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큰스님께서 불자 여러분의 온갖 정성으로 이룩한 성전을 종단에 헌납코자 98년 5월경 조계종단에 등록신청을 출원하였으나 종단사태 등 여러 가지 복잡한 외적 요인 등으로 인해 1년여가 넘도록 종단 등록을 못하다가 종단사태가 정리된 최근에야 종단등록 신청이 수리되어 지난 5월 종단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에 법당낙성 3주년 기념식 및 나한전 봉불식과 어린이를 위한 공연행사를 봉행 하오니 전국의 불자 여러분께서는 모두 동참하시어 제주 약천사에서 성불인연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 마하 반야바라밀

불기 2543년 10월 일

### 일정

10월 22일 오후 6시

6:00 저녁예불

7~11시 법문

①철웅 큰스님

②해국 큰스님

보살계수계: 해인큰스님

11시 영가천도제

<오전> 4:00 새벽예불

6:00 아침공양

8~9시 나한전 봉불식

### 기타공연

- 동국실내 국악단 연주
- 조경자씨 관소리(심청가 눈뜨는 대목)
- 김희정씨 한량무, 승무
- 약천사 어린이 사물놀이 공연
- 약천사 탐라다도회 육법공양
- 박경숙씨 "신갈대신 무"

### 불사 동참안내

- 영가보살계 1위 - 오천원
- 보살계수계 - 일만원
- 영가등접수 - 일만원

### 송금방법

31-01-058513(제주은행)  
예금주 : 약천사

· 낙성 3주년 기념식 ·  
10월 23일 오전 9시

대한불교 조계종 약천사

회주 慧 印  
주지 性 空

합장 · 전화 064)738-5000  
· 팩스 738-5022

## 댄스그룹 "신화"가 약천사에 옵니다.

### 어린이를 위한 초청공연

10월 24일 댄스그룹 '신화'

10시 30분 > 공연

- ▶ 신화 소장품 선물 추첨
- ▶ 선물추첨(CD, TAPE) 100명
- ▶ 기념촬영(추첨)
- ▶ 참석자 브로마이드 증정(30,000명)

10월 31일 개그맨 강호동

11월 7일 개그맨 김경식

11월 14일 개그맨 박수림

★ 시간 - 매주 일요일 10시 30분

■ 협력업체 : 협력업체를 이용하시면 값싸고 편하게 제주에 오실 수가 있습니다.

- 서울 선재여행사 02-582-6647~8
- 부산 우진항공여행사 051-635-6333
- 대구 무궁화관광 053-423-5501~5
- 제주 대자연교통(교동편 문의처) 080-996-9999, 011-699-3348
- 반야여행사 02-730-0020